

미니시리즈... '한국폐기물학회'를 찾아서

환경·자원 재생의 기수

최근들어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와 관련된 16개 학회중 도시쓰레기, 분뇨,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연구하는 한국폐기물 학회를 찾아가 보았다.

지난 83년에 설립된 한국폐기물학회(KSWES)는 폐물처리와 응용분야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의 연구개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학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연구분야는 그 종류와 양적 측면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도시쓰레기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한 학회의 연구는 도시쓰레기재활용방안 및 쓰레기분리수거, 쓰레기를 이용한 열발전소문제까지 다양하다.

매년 1회 정기총회와 봄, 가을 2회에 걸쳐 학술 심포지움을 갖는 폐기물학회는 학회지발간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일본등 5개국이 참가하는 학술심포지움의 경우 각각 주제를 발표한다. 심포지움과 함께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상호간의 폐기물처리시설단이 다른나라의 모범사례를 배우고 있다.

김정현교수는 폐기물학회의 이후 연구방향에 대해 "산업폐기물처리 기술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측에서 보면 기술, 이론의 제공과 새로운 폐기물의 처리방법 연구 및 재활용의 문제는 학회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다. 이제의 도시쓰레기라는 전

도시쓰레기 재활용방안 연구가 관건
연구성과물 제공 통한 산·학협동 일익

폐기물학회는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방안에 대한 기술과 이론을 환경관련기관 및 산업에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열에너지화원기 회사등의 경우에는 이 학회에서 무상으로 기술과 이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때문에 김정현(자대 환경학·한국폐기물학회 이사)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산업폐기물처리와 시설건설에 관심을 갖고 본학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공동연구를 해나가고 있다"며 "산·학협동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는 사업체와 대학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한다.

제작, 포괄적 개념에서 좀더 특수한 예를 들어 페타이어 재활용문제, PVC재활용문제, 분뇨의 자원화등의 분야에 좀더 많은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특정연구분야의 연구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사회로 발전해나감에 따라 다양한종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폐기물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재정보조와 기술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지환 記者)

민속학 연구의 이정표

학술단평

'국제 샤마니즘 학술회의'의 성과와 의의



◇지난 7월말 서울에서 열린 행사장면

제1회 국제 샤마니즘 학술회의가 지난 7월 22~28일 사이에 서울의 프래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는 국제샤마니즘 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hamanic Research:ISSR)와 본교 민속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주제는 '샤마니즘의 지역적 실상'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서양 6대주와 사회주의 국가까지 합류해 26개 국으로 부터 1백40명이 모인 세계적 규모였다.

1. 대회의 내용과 진행

학술회의는 샤마니즘과 종교, 민속, 의료, 예술, 샤마니즘의 이론과 역사, 철학등 5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분과인 샤마니즘과 종교 분과에서는 샤마니즘 자체의 문제 또는 샤마니즘과 일반 종교와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2분과인 샤마니즘과 민속에서는 샤마니즘과 관련된 각 민족의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제3분과인 샤마니즘과 의료에서는 샤마니즘의 질병치료와 각 민족의 전통적인 의료와 샤마니즘과의 관련성을 다루었고, 제4분과인 샤마니즘과 예술에서는 샤마니즘의 제의에 포괄되는 노래·춤·연극적 요소 등의 종교예술적 실상과 현대예술과의

관련성도 다루었다. 제5분과인 샤마니즘의 이론/역사/철학에서는 샤마니즘의 분석과 역사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그리고 샤마니즘에 대한 철학적인 조명 등이 다루어졌다.

7월 22일 오전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의 샤만과 하와이 샤만의 굿 시범이 있었고, 7월 23~25일까지 3일간은 앞에 말한 5개 분과의 집중적인 논문발표가 있었다. 26,27일에는 한국 샤만의 굿 현장 관찰 조사를 하고, 28일 오전에 종합토론을 하고 오후에 쉬었다가 저녁 송별연으로 일주일 간의 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학회와 학자들끼리만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끝을 마치며 미친 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 대회는 그 학자들의 이론 기반이 되는 샤마니즘의 현장을 관찰 조사를 할 기회를 병행시켰다.

II. 발표·토론요약

샤마니즘은 각 지역마다 각 민

족들이 생활하는 문화배경에 따라 외양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의에 소요되는 복장과 언어·춤·음악·동작 등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는 눈과,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우주적 율동에 따른 우주적 사고는 지역성을 초월해 샤마니즘이 깨

도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샤마니즘의 우주적 원상(原象)은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간 인류정신의 원상(原象)이기도 하다. 그래서 샤마니즘은 인류가 문명권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던 인류정신의 원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인류정신문화의 근원이자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샤마니즘은 단순한 종교·민속·예술·역사·철학 등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명으로부터의 다

각적인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문명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제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적 원상이 무엇인가를 돌아다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21세기를 맞는 샤마니즘의 연구 방향은 샤마니즘의 현상적 기술과 샤마니즘 속에 내재한 사상성분에서 전일보하여 현대사회문제까지 시야를 넓혀 인류의 미래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930년대 초에 소련·몽골·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진 샤만들의 측

출은 현대인들이 이데올로기에 휘둘러 자기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실존에 비유된다.

샤마니즘을 단순한 종교문제로 볼 때 종교적 시비나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되지만, 샤마니즘에 대한 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샤마니즘이야말로 인류정신문화의 동력원이 된다.

III. 학술회의의 성과

이번 학술회의의 성과를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학술회의는 샤마니즘이 학문적 관심 속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세기를 지나 서양 동·서양의 이 분야 전문학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샤마니즘에 관한 학술회의는 아시아지역이나 유럽지역, 미주지역에서 몇몇 나라 학자들이 모였거나 또는 인류학이나 민족학·종교학·민속학에 관한 학술회에서 한 분과로 끼어서 논의

되던 것이, 샤마니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국제샤마니즘학회에 창립되어 그 첫 모임이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1회 국제샤마니즘학술회의는 세계 샤마니즘 연구사(史)에 길이 간직될 기념비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제1회 서울대회(The 1st ICS in Seoul)는 정관을 제정하여 학회지를 발행하고 2년마다 순번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제2회 대회를 부다페스트, 제3회 대회를 캘리포니아, 제4회 대회를 베를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해, 국제샤마니즘학회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조직망을 갖춘 학회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울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한데 모아 서울(한국어)·동경(일본어)·뉴욕(영어)·부다페스트(영어)에서 각기 출판하기로 결정해,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여 샤마니즘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지금까지 막혀있던 북방 시베리아·몽골·중국 그리고 헝가리·불가리아 등지 사회주의권 학자들이 참가해, 그동안 국책으로 연구되어 온 시베리아·몽골·중국 등지의 샤마니즘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이제까지 자유진영의 학자들이 어렵게 얻어오던 북방 샤마니즘에 관한 정보의 공급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민족의 북방이동설이나 한국문화의 북방전래설을 재기해 왔는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샤마니즘에 관련된 한국고대문화의 북방관련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1992년 7월에 소련의 야구타에서 열리는 정부차원의 국제샤마니즘심포지움에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학자들이 초청되어 시베리아 현지 학자들과 합동으로 시베리아의 샤마니즘을 조사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자, 이번 대회는 이 분야 연구의 인류교류협력 쪽에서도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태 곤

(문리대교수·국문학)



권력자 안위 위한 사형구형(?)

현대사회를 흔하든 무가치의 사회 또는 가치혼돈의 사회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바로 사회가 제모양을 찾지 못하고 혼란속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무가치 또는 가치혼돈의 사회라는 현대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기준이 어떠한 특정 계층이나 다른 무엇에 의해 위협을 받고 대다수 대중들은 이러한 위협과 기존의 가치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해지는 이것을 가리켜 바로 무가치 또는 가치 혼돈의 시대라 칭했음

이다. 지난 19일 검찰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동자 시인이며,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중앙위원회에 결심공판에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하였다. 검찰의 논고를 빌자면 박노해씨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여 사노맹을 결성하고 그 간부(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수괴)로 활동하였고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혁명을 선포하는 유인물과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는 혐의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수괴임무수행죄였다.

여기서 세시봉씨는 또 한번의 가치혼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주대낮에



죄파이프로 사람을 죽인 전경들과의 행랑을 비교해 보았을때, 집회·사상·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생각했음, 이렇듯 대다수를 차지하고 실질적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의 진술을 접했음에도 또한번 가치관의 혼돈을 겪을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대다수 대중을 형성하고 있는 노

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온 사람에게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헌법에 보장돼있는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 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있어서 사형을 구형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초월하는 법률이라는 말인가. 만일 무장봉기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행동이 있기도 전에 법 적용부터 하는 나라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상·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가 몰살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자유가 아닐 것이며 이렇듯 대다수 대중을 위해 일해온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 나라는 더이상 국민의 것이 아닐 것이다.

세시봉씨는 그들이 진정 일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한가지 묻고 싶다.

검사가 박노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읽었던 논문중 "대다수 국민의 안위를 위해...사형에 처한다"는 대목의 '대다수 국민'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안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학술정보

서울교실위 '영어특강' 26일부터 정경대 111강의실

서울 캠퍼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이하교실위)는 26일부터 4주간 영어특강을 실시한다. 인권복지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이 특강은 학생들의 학업충진을 위한 것으로 남지수 TOEFL강사의 지도아래 코리아호텔빌딩 사설과

취급 vocabulary를 공부하게 된다.

오후 5시10분부터 6시20분까지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경전반, 불교영어반 개설 19일부터 연동불교회관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19일부터 두달간 가을프로그램으로 경전반, 불교영어반등을 마련, 연동국제불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강좌는 외국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 3시, 5시 1시 30분동안 모두 영어로 진행될

다. 외국인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고, 일반인에게는 영어학습증진의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강좌의 문의전화는 735-5347이다.

불교사회교육원 '생태학교' 오는 6일부터 중앙불교교육원서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은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올바른 생활양식"이라는 주제로 제1기 생태학교를 개강한다. 오는 9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30분부

터 2시간동안 중앙불교교육원(지하철 3호선 홍제역소재)에서 열린다.

수업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김상중(서울대 미생물학과)교수의 7명으로 대외 환경문제, 협동조합, 생태학적 세계관등에 관한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문의전화는 765-6324이며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환경문제나 생태계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8천원이다.

하숙생, 자취생을 위한 전화가입 회소식

주인집 전화는 불편해서 친구들이 걸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숙·자취생활을 하다보면 편치않은 마음으로 주인집전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더우기 밤늦게 친구들의 전화를 받기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설치하고 싶지만 대학생에게 250,400원이라는 목돈마련이 쉽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월 25,000원 (10회 불임)이면 「나만의 전화」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주인집전화는 밤늦게 친구들이 걸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의 전화는 한밤중이라도 친구들과 부담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더우기 전화를 예약하실 때에는 장치비 8,400원을 공제한 불임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아주 적습니다.

■ 신청 및 접수
각 국번 + 0000번이나 전화국 창구

한국통신 청량전화국

※ 경희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8월 26일~30일까지 정문앞에 이동전화국을 설치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시 25,400원만 내시면 즉시 전화를 쓰실 수 있습니다.

SINCE 1961

개원 30주년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종로2가 종각역 TEL : 734-2442

영어·일어·독어·노어

아카데미 TOEFL
TOEFL GRAMMAR
VOCAB 22000
영 어 문 해
TOEFL 600
M-A English

미국어 HEARING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분영어
TIME 영작문
영 어 회 화
(초·중·고급)
미국인회화
GRE 2000
입사문제해설반

일본어·독해
(초·중·고급)
일 어 회 화
일본의회화
독 일 어
(초·중·고급)
GMAT 700

軍·행정병·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처

●행정병 주특기 부여
●매월 단독 입영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사 학원주의
○사무직등록(OA)병
○차트(일반행정병)
○타자 행정병

관 인성학원
730-6946~7

관 유니타학원
735-2323, 9716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금에 열망한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준 학원인 나기 영어 회화 중임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러면 외면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각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어에 달란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간·김·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미리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익숙 때문에 학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19기 수강생모집
●개 강 : 1991. 9. 2 (8주)
●개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원 생 : 8~13명씩 7단계

●미국·영국 개별 이학연수 상담
●재·입학·인·외·교·보·보·보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빌 737-4641 대

프랑스어

9~10월 학기 수강접수중
●개강 : '91.9.2(月)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alliance française

●mauger 1. II, sans fron. 1. II, II
●archipel 1. II, II, II, bonne route 1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SFP
●각과점 특강, 속성반, 문법중점반
●conversation libre, 자시제나이란

seoul-centre ☎ 755-4972, 5702 (종로)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364-0189
TAEG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한·韓·佛·文·化·財·團